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사

제435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11월 26일 화요일

1

입시 경쟁률 평균 3.06 대 1

무역학과 6.58대1로 최고...사범대 기피 뚜렷
54개 학과 1,920명 모집에 5,867명 지원

대학 학과별 지원현황(1991. 11. 25)

대학별	모집단위	입학정원	지원자	지원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0	104	2.60
	영어영문학과	40	59	1.48
	독어독문학과	40	258	6.45
	독일어영문학과	40	89	2.23
	중어중문학과	30	126	4.20
	사회학과	40	164	4.10
	사회학과	40	202	5.05
	윤리학과	40		
	(성악전공)	(10)	22	2.20
	(피아노전공)	(10)	41	4.10
	(관악전공)	(6)	12	2.00
	(작곡전공)	(4)	12	3.00
	(연주전공)			
	바 이 올 린	(5)	3	0.60
	벨 울 로	(2)	2	1.00
	첼	(2)	5	2.50
	콘트라베이스	(1)	1	1.00
	미술학과	40		
	(한국화전공)	(13)	22	1.69
	(서양화전공)	(15)	44	2.93
	(조소전공)	(12)	26	2.17
소 계	9개 학과	350	1,192	3.41
법정대학	법학과	50	206	4.12
	법정학과(야)	50	80	1.60
	법정학과(야)	20	82	4.10
	법정학과(야)	20	54	2.70
소 계	4개 학과	140	422	3.01
경상대학	경영학과	50	86	1.72
	관광경영학과	40	105	2.63
	회계학과	50	167	3.34
	무역학과	40	263	6.58
	경제학과	40	194	4.85
	경영학과(야)	20	68	3.40
	경계학과(야)	20	76	3.80
소 계	7개 학과	260	959	3.69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	22	1.10
	영어교육과	20	21	1.05
	사회교육과	15	16	1.07
	상업교육과	10	14	1.40
	국민윤리교육과	10	13	1.30
	수학교육과	20	27	1.35
	화학교육과	15		
	(생물교육전공)	(7)	8	1.14
	(생물교육전공)	(8)	8	1.00
소 계	7개 학과	110	129	1.17
농과대학	농예학과	40	180	4.50
	농학과	40	95	2.38
	축산학과	40	229	5.73
	농화학과	40	155	3.88
	농업경제학과	40	167	4.18
	농업경영학과	40	256	6.40
소 계	6개 학과	240	1,082	4.51
해양과학대학	어업학과	40	122	3.05
	중식학과	40	140	3.50
	해양학과	40	201	5.03
	해양환경공학과	40	94	2.35
	해양토목공학과	30	74	2.47
소 계	5개 학과	190	631	3.32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40	114	2.85
	생물학과	40	186	4.65
	화학학과	40	95	2.38
	수리물리학과	40	67	1.68
	수학과	40	50	1.25
	가정관리학과	30	81	2.70
	체육학과	40	129	3.23
소 계	7개 학과	270	722	2.67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40	88	2.20
	기계공학과	40	111	2.78
	응용신공학과	40	61	1.53
	에너지공학과	40	77	1.93
	정보공학과	40	51	1.28
	전자공학과	40	66	1.65
	전기공학과	40	97	2.43
	화학공학과	40	54	1.35
	산업디자인학과	40		
	(시각디자인)	(10)	33	3.30
	(공예디자인)	(10)	29	2.90
	(산업공예)	(20)	63	3.15
소 계	9개 학과	360	730	2.08
총 계	54개 학과	1,920	5,867	3.06

'92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
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 결과
8개 단과대학 54개 학과(야
간강좌부 포함) 총 1천9백20
명 모집에 총 5천8백67명이
지원해 평균 3.06대1의 경쟁
률을 나타냈다.

이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1
천8백80명 정원에 6천2백55
명이 지원하여 3.33대1의 경
쟁률을 보였던 데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제1차입학
소속 단과대학에서 원서를
접수한 결과 농과대학이 2백
40명 모집에 1천82명이 지원
해 4.51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사범대학이 1백10명
모집에 1백29명이 지원해 1.
17대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사범대의 경쟁률이
낮은 것은 국립사범대 출신
우선입용제폐지와 제주지역
의 교사적현상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1차만 소속 단과대학별
원서 접수결과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인문대학 △모집정원=3
백50명 △지원자=1천1백92
명 △경쟁률=3.41대1 ▲법
정대학(야간강좌부 포함) △
모집정원=1백40명 △지원자
=4백22명 △경쟁률=3.01대
1 ▲경상대학(야간강좌부 포
함) △모집정원=2백60명 △
지원자=9백59명 △경쟁률
=3.69대1 ▲사범대학 △모집
정원=1백10명 △지원자=1
백29명 △경쟁률=1.17대1

▲농과대학 △모집정원=2백
40명 △지원자=1천82명 △
경쟁률=4.51대1 ▲해양과학
대학 △모집정원=1백90명
△지원자=6백31명 △경쟁률
=3.32대1 ▲자연과학대학 △
모집정원=2백70명 △지원자
=7백22명 △경쟁률=2.67대
1 ▲공과대학 △모집정원=3
백60명 △지원자=7백30명
△경쟁률=2.08대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경상대학 무역학과로
40명 정원에 2백63명이 지원
해 6.58대1의 경쟁률을 나타
냈고, 인문대학 독어독문과
과 6.45대1, 농과대학 농업경

제학과 6.40대1, 축산학과 5.
73대1, 인문대학 사회학과 5.
05대1, 해양과학대학 해양학
과 5.03대1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신설된 인문대학 중
어중문학과는 30명 모집에 1
백26명이 지원해 4.2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사련 대회에 참가
사대대표단 6명

지난 11월15·16일 서울대
에서 목포대, 안동대, 강원대
를 제외한 11개 국공립사범
대학생 4백여명이 참석한 한
계 가운데 열린 전사련 1만6천
전진대회에 우리학교에서는
강은정(영교 2) 학우등 6명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3시부터 원서접수 창구가 붐비기 시작했다.

의 학우가 이 행사에 참석했
다.

이번 전사련 전진대회에서
는 △교육운동 탄압사례 발
표 △제6차 교육과정 개편안
에 대한 설명서 발표등에 이
어 △11월23·24일에는 한계
대신문지상에 일용고사 철폐
를 요구하는 광고문을 신기
로 결의했다.

알림

이번 제435호를 끝으로
제2학기 신문을 중단합니
다.

다음호(제436호) 신문은
1992년 1월5일자로 발간됨
을 알려드리며, 그동안 성
원해주신 독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발굴에 총력 채택된 계획에 대해 예산 대폭 지원

대학당국에서는 '92학년도
에 개교 4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우리학교의 도약의 계
기 마련과 성장과정 및 발전
양상을 대내외에 더욱 효과
적으로 알리는 한편 제대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
대한 개교 40주년 행사를 발
굴하고 있다.

기획실에 따르면 내실있는
행사발굴을 위해 행사계획을
심의 선정하고 제반절차를
추진키 위한 준비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임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대학 △모집정원=1백90명
△지원자=6백31명 △경쟁률
=3.32대1 ▲자연과학대학 △
모집정원=2백70명 △지원자
=7백22명 △경쟁률=2.67대
1 ▲공과대학 △모집정원=3
백60명 △지원자=7백30명
△경쟁률=2.08대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경상대학 무역학과로
40명 정원에 2백63명이 지원
해 6.58대1의 경쟁률을 나타
냈고, 인문대학 독어독문과
과 6.45대1, 농과대학 농업경

확안을 11월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데,
기획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
면 "아직까지는 제출된 행사
계획안은 없는 상태"라면서
"한건도 제출이 안됐을 경우
에는 기획실 자체적으로 행
사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간내에 제출되는
행사계획안은 내년 1월중에
준비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고 행사추진
에 따른 소요예산은 '92학년
도 기성회계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하르방

전도된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는 왕조중심적이고
인물중심적으로 기술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
사교육도 왕조의 변화와 인물의 일대
기 서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들 한다.

대신 어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과 변화가 없었다고 말한
다. 개인 중심의 역사서술이다보니
사회의 변화를 서술한 역사자료가 없
어 사회의 변동은 없었다는 얘기가
다들 나온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변
화에 한해서만은 기록이 없으니 우리
사회의 발전은 조선왕조가 말할 무
려야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개인중심의 역사서술은 우
리들의 사고까지도 바꿔놓았다. 즉
업적주의다. 특히 이러한 것은 사회
지도층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업적주의는 개인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이에 대한 거부는 대
단한 도전으로 본다. 심지어는 권력
의 누수현상이라고 보고는 눈과 귀를 막

고 감행한다. 결국은 융통성을 잃고
마는 것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에 대한
대통령 주민들의 반발이 그였고, 무
원칙적인 골프장 설치허가에 따른 금
악리·북촌리 주민들의 저지투쟁등
모두가 융통성없는 정책집행에 반발
했던 사례들이다.

이는 정책집행자들이 변화의 중심
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거나, 아니
면 그 수리를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사회변화의 의식은 오래
전부터 변화를 해왔으나 사회지도층
에 있는 이들의 의식이 오히려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듯 싶다. 고자 생각하고 우
려한 것이 권력누수현상이라.

삶의 질이 개인의 업적에 의해 향
상 되는대로 가는 방향을 잃고 말았
다. 더욱이 주위의 계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줄 수 없는 곳으로 이
끌려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
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 문제다.

한창 특별법제정논제가 논란이 되
고 있을때(물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지만) 민심을 알아보고자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에서 실시

다한 임명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
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제
정강행의 근거가 권력누수현상 문제
이외에 임명에서 얻은 민심의 결핵이
별론에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
바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진 도민 다
수의 반대와 우려를 왜곡한 데서 법
제정 강행은 법집행에서도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때가서는 감제력으로서 법집행을 할 것
인가!

아니면 지난 11월9일자 일간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는 도내
경제인 연합회가 도와줄 것이라 생각
하는가.

이는 그동안 묵묵히 빌레가 바친
땅을 육토로 바꾸는 도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제주도를 개발하고 업적
을 쌓겠다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지도층의
업적주의가 빛고 있는 지금의 특별법
제정강행은 다시 원점을 찾아 제자리
에 서야 마땅하다.

아직도 지배층에 의한 역사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
이다.
제주도사는 제주도에 의해 서술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평의원회 의장 선출

제3기 의장에 양창보 교수

고남육 평의원회의장(경제
학과 교수)이 교무처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양창보(미술학과)교수가 지
난 10월25일 실시된 보궐선
거에서 평의원회의장으로 선
출됐다.



이날 회장에 피선된 양창
보교수는 '93년 3월 26일까
지 평의원회의장직을 수행하
게 된다. 신임 양창보평의원
회의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
과 같다.

△62년 서울대 회화학과
졸업 △63년 제주여고 교사

△68년 오현고 교사 △74년
우리학교 미술교육과 근무
시작 △85년 사범대 교무과
장 △현재 한국미술협회 제
주도주회 회원

농협은 지역발전의 주역입니다.

우리농산물 애용하여 민족자존 일깨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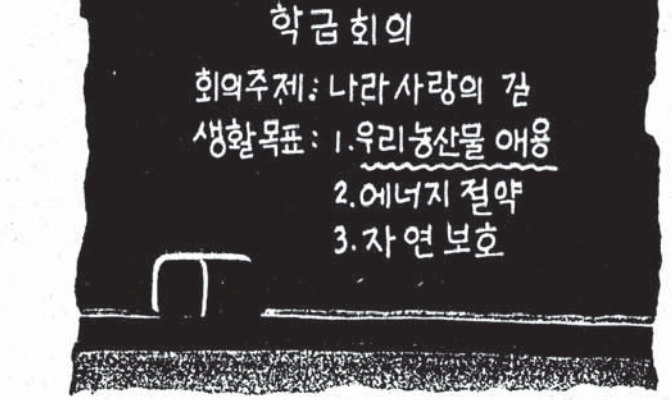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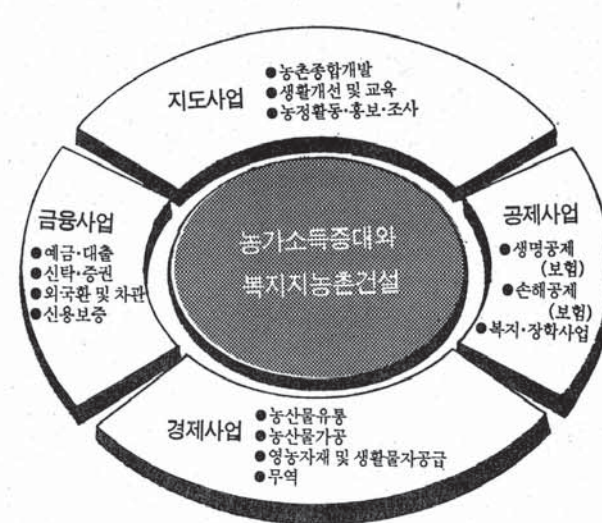
쌀 수입개방 반대서명운동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身/土/不/二/

이땅의 사람들에게 이땅의 농산물

농협이 펼치는 사업

농협은 지도·경제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의 고향을 아름다운 새농촌으로 가꿔 나갑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또한 농촌과 도시를 하나로 이어주
고 있습니다.



'우리농산물애용'으로 결정했어요

오늘 학급회의 시간에 '나라 사랑의 길'이란 주제로 회의를 했다.
철호는 '에너지절약, 순영양'은 '자연보호',
모두 좋은 의견을 이야기 했다.
나는 문득 얼마전 아버지께서,
"오늘 외국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어 우리농촌이 힘들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 농촌을 살리는 일이지.
우리 농산물은 신선해서 우리 몸에도 좋은 거란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우리 농산물애용을 주장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우리 농산물 애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선생님께서는 '너희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하시며
칭찬해주셨다.
우리는 모두다 애국자가 된 기분이었다. -철이의 일기-



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쌀 개방 저지합시다!!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社説

종강에 즈음하여

대학의 존재의의를 다시 생각한다

종강과 더불어 입시 시즌이 시작되는 이 때에 대학의 존재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고졸학력으로 끝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대졸학력이 초래하는 경제적인 손익관계를 따져보자. 이 점에 있어서는, 대학과정 수학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지출과 대학진학 대신에 직장생활을 택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가상 수익을 고려해 볼 때, 직장에서의 호봉제정과 승진서열에서 행해지는 대졸자 우대정책을 감안함에 이르러서는 대학진학의 길이 결국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빼놓을 수 없으니 그것은 대졸자와 고졸자가 평생동안 영위할 경제생활의 패턴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개인의 교육연한이 길어진다든 사실은 그 사람의 잠재적인 욕망이 자극받고 촉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짐을 의미한다.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이는 것이 많고 생애내용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갖가지의 욕망에 대한 욕구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 대졸자에 어울리는 문화생활은 더 큰 주제를 요구하고, 대졸자라는 프라이드는 자신의 육체노동으로 할 수 있는 가사일 같은 것도 남의 손이나 기계의 힘을 빌리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 지출이 많아 질 것은 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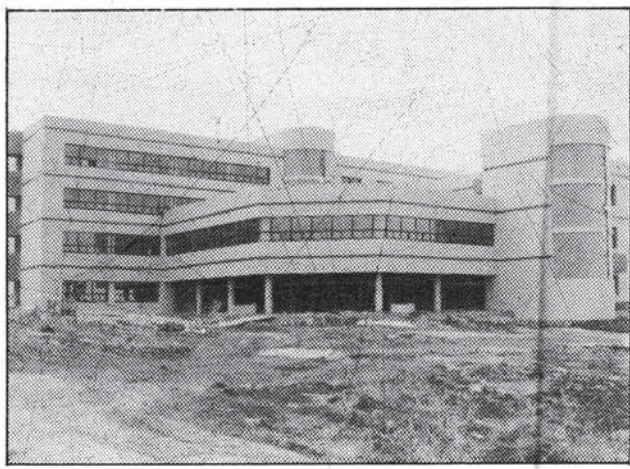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대학진학을 택한다는 것은 적어도 경제적인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의 길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 마이너스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의 플러스 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지금과 같은 대학진학 선호의 풍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경비지출은 많이 나가지만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삶의 방식을 대학 과정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긍정적으로 대답할 자신이 있는가. 지금 제주시에의 공공기관중에서 제주대학 캠퍼스와 같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공공기관이 잘 파손되고, 전력사용에 낭비가 많고, 각종 자국성 소음 공해가 심한 곳이 다시 있을까. 막대한 예산을 바치는 축제행사들은 괜히 법석만 들고 생산적인 학술활동이 별무한 공식적인 휴식기간이나 다름없는 형편이고, 어쩌다 있는 교양강연회는 빈 좌석 채우기가 한을 정도이다. 교원일용고시 문제, 제주도 개발 문제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조소리만 요란했지 진지한 연구와 대화의 분위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책가방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교수는 책공공놀이하는 학생들의 공을 피하여 비껴가만 한다.

이까운 청춘과 귀한 돈을 바치는 대학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경제학자의 우려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우리 대학이 대졸자라는 고급 한량들만 양산하여 우리 사회의 육체노동 기피풍조를 조장하고 노임상승과 산업구조 취약화를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국력쇠퇴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만 있을 것인가. 한 학년도 마감하고 희망찬 신입생을 맞이해야 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처한 위상을 다시 한번 엄숙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痛大漫評



가축병원 신축 예산 10억여원 확보
제2학생회관 마무리공사에 돌입
12월초순경 미술·예술관 신·증축공사 착공



△내년도 완공목표로 마무리 공사한 제2학생회관

오는 94년말까지 1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천9백6평방m(약6백평) 규모의 부속가축병원이 건립된다. 시설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에 가축병원공사 계약을 의뢰한 결과 도내 제일종합건설(주)에 낙찰됐다"면서 "오는 12월 중순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병원은 도서관과 기숙

사 사이의 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지어지는데, 이 가축병원에는 대동물수술실, 소동물수술실, 입원실, 대동물 처치실, 교수실,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시설과에 따르면 예술관 증축 및 미술관 신축공사도 12월초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축 미술관은 1억3천9백7만6천원을 투입, 2천1백평방m(약 6백40평) 규모

로 도서관 동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공대C동과 외국어교육관 공사를 맡은 바 있는 삼오종합건설(주)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축중인 제2학생회관은 투입액 총29억여원 중 현재까지 16억여원이 투자, 외부시설만 완공된 상태인데 내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24일자 도내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23일 국회에결정되어 운영된 교육부장관은 내년 8억2천만원을 투입해 89년에 착공한 학생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학생회관은 시설사업비 부족등의 이유로 93년8월 말에나 완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의 외부공사만 마감을 건물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공대본관은 올해 계획된 내부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내년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90년도에 착공한 공대C동은 총 25억여원이 투입되는데 92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백50만원 △한국전기통신공사(91통신학술단체 육성지원금) 3천, 3천8백만원 △통신학술단체육성위원회 2천, 2천5백만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인문분야가 5건에 1천6백50만원, 자연분야가 33건에 1억9천30만원으로 자연분야에 대한 지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대표, 수리 지질학 전공) 초청 '제주도 지하수자원의 오염현황과 관리보존대책'에 관한 강연이 해양환경공학과 주최로 지난11월22일 오후 1시30분부터 해양과학대 세미나실(지하)에서 교수, 대학원생,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문과 학회발표회
시화전도 열려

▲국어국문학회 학회(학회장 김수일 3)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오후3시 8116강의실에서 '1991년도 학회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삼소리 연구회·전주 한국문학에 나타난 반대의식의 전개와 양상 △민요연구회·현 민요 쇄멸을 극복하는 올바른 방향 △글쟁이연구회·'식민지 시대'의 동민문학 △글쟁이연구회·'여성문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등 각 분과별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또한 시 창작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인문대 휴게실에서 시화전을 열었는데 이 시화전에서는 강남훈(4) 학우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14편의 시가 전시됐다.

발간소식
일문과 『너나들이』

▲『너나들이』9호가 일어 일문과 학회(회장 오연숙 3)에서 지난 11월 중순경

한정상 박사 초청 '제주도 지하수의...'

▲한정상 박사(서울 한서

학생회칙 개정 하지부지
'특별기구'설치 근거 명문화 시급

올해 개정될 예정이던 총학생회 회칙이 지난 9월 12일 '총학생회칙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끝으로 유야무야하게 끝나 버려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었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91학년도'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26일 총 6명(지역조사위원회 위원장, 총대 회장, 총대 부회장, 사법대 부학생회장, 법정대 기획부장, 인문대 부학생회장, 총학생회(전주)로 구성된 회칙개정 소위원회가 부진하자 7월에는 상임위원회 산하로 이를 재구성(회칙개정 소위원회 위원장, 인문대 부학생회장, 사법대 부학생회장, 경영학과 학생회장, 농학과 학생회장)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공청회에서 건의된 안건들이 제정되지 않아 상임위와 총학생회장의 발의권마저 얻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 기획부(김동주 전)공4)은 "회칙개정을 해야한다는 감박관념속에서도 준비가 미흡했다"며 "인수인계부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결과"라고 전제. "올해의 회칙개정 소위원회와 '92학년도 회칙개정소위원회가 함께 결집된다면 내년에는 회칙개정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92학년도 차기 총대의원회 의장(김제성 법학8)은 "회칙을 개정한다고 해도 과연 아닐 것이다"라고 전제. "이번의 회칙 개정기간은 전문부와 회칙내용이 어긋나고 있다"며 "올해의 회칙개정소위원회와 내년도 회칙개정소위원회를 함께 묶어서 올바른 회칙개정을 마련하고 확실한 공청회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 모범적인 인수인계부분을 강조했다.

올해 회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칙개정에 의한 특별기구(예: 총대비서 협의회, 단대문화 협의회)가 정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회칙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총대의원회 부의장(강문식 경제3)은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 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마무리 부분이 아직까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학생회 사업들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회칙개정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회칙에 어긋난 활동들은 전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올해의 회칙개정소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올해의 이러한 오류를 바탕으로 하우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회칙개정이 실현되길 바란다.

발간소식
이번호에는 '노동문화, 현재 위치는' '한반도 비핵화'와 '전제조건' '일본인소식' 등의 글이 실려있다.

신세대 『문화전선』

▲신세대(회장 심유정 전)에서 『문화전선』 제34호를 지난 11월 4일에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논단' '북한' '마음의 역사 및 재건', '전반적인 골프장 문제점', '북한 리 골프장 인가 문제점 및 부당성' △특수강 '사람은 기술이라는데' 등이 실려 있다.

사대부고 『용언』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교장 김환희)에서 『용언』 제6호가 지난10월말에 발간됐다.

이번호에는 △특집 '개교 초창기를 돌리는' △학생문단 △교사문단 '배려'와 '술 권하는 사회' 소고(김광택 교사) '문예해설에 대한 이해'(문성중 교사)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을 통한 영문해독력 향상 방안(이택교사) △교사문단 등이 실려 있다.

게시판
토박이 창립공연

▲꼭두각 연구회 토박이(회장 김경희 사회 3)창립공

금요명화감상회

11월29일 체플린 시리즈 제3탄 "시티라이트(City Light)" 12월 6일 "오피셀스트리"

△일시:매주 금요일 오후2시

△장소:사범대 2층 여학연구소

△관람료:무료

△문의:사범대 2층 여학연구소

남·여 대학생, 학과·학년관계 없음

●당사는 금번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활동적인 남·여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드립니다.

1. 특징

- ① 주3회(월·수·토) 출근-11시출근, 4시간근로(자유시간하루)
- ② 정규교육 및 실무지도(소요일제경비 당사부담)
- ③ 기본급+출근수당별도지급+노력의 대가 별도수당지급(월보수 최저 50만원이상)
- ④ 우수근로자 장학금 별도지급

2. 제출서류

① 학생증사본 1통

※ 상단에 현재주거 주소와 연락처번호 필히 기재!

3.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오리엔테이션=12월 12일(목)

(1차합격자 12월11일(수)까지 개별통보)

4. 접수기간: 1991년 12월7일(당일소인유요)

※ 보낼곳: 제주시 제주우체국 사서함1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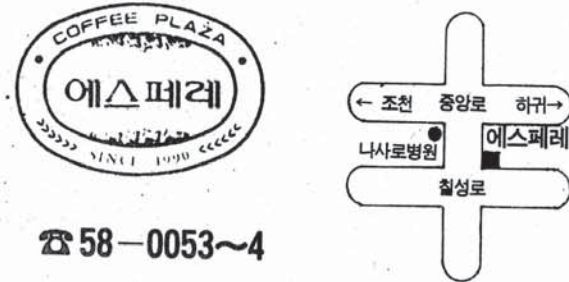
중앙일보 제주사업본부(신문사출판사업국) (아남)

남·여 아르바이트생모집

커피문화의 신선한 충격
Esperer coffee shop제주에 상륙
엄선된 원두와 뛰어난 향

커피의 세대교체 선언
Esperer제주점 탄생
이태리, 미국, 브라질, 유럽의 커피맛을
이제 제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품격주의를 선언한 Esperer
이 가을
Esperer와 당신과의 만남은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새로운 커피문화를 창조하는



즐거워하는 새해

우리의 맛과 정서를 듬뿍 담은

연하장 달력판매

사랑으로 가득채운 뜨개옷

대폭할인판매

참교육사에서는 본교학생회관에서 12월6일까지 참교육물품을 판매합니다.(토·일제외)

그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큰절드립니다.

함께여는 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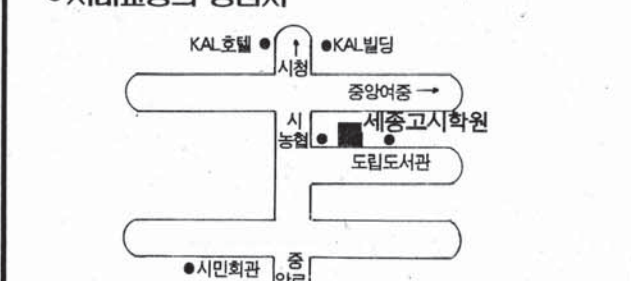
☎ 22-1589, 57-9445

세종고시학원

(개원예정일 12월10일)

I. 특징

- 냉난방시설완비(기름보일러)
- 1인1실의 완전한독방
- 완벽한 방음시설
- 최신형 책상·책꽂이와 피로감 없는 고급의자 구비
- 소음과는 완전 차단된 곳으로 분위기 만점
- 시내교통의 중심지



II. 위치: 제주시 삼도1동 232번지
방송통신대학·도립도서관 옆 신축건물

III. 전화: 064-57-7779

동계방학 아르바이트생모집!

남·여 대학생, 학과·학년관계 없음

●당사는 금번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활동적인 남·여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드립니다.

1. 특징

- ① 주3회(월·수·토) 출근-11시출근, 4시간근로(자유시간하루)
- ② 정규교육 및 실무지도(소요일제경비 당사부담)
- ③ 기본급+출근수당별도지급+노력의 대가 별도수당지급(월보수 최저 50만원이상)
- ④ 우수근로자 장학금 별도지급

2. 제출서류

① 학생증사본 1통

※ 상단에 현재주거 주소와 연락처번호 필히 기재!

3.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오리엔테이션=12월 12일(목)

(1차합격자 12월11일(수)까지 개별통보)

4. 접수기간: 1991년 12월7일(당일소인유요)

※ 보낼곳: 제주시 제주우체국 사서함106호

중앙일보 제주사업본부(신문사출판사업국) (아남)

□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체결 배경과 그 의미

‘팍스 아메리카’ 위한 전략 일환

국민의사 상관없이 미국 필요시 각종시설등 접수
평화군축·자주화투쟁 전개해 미국 압력 벗어나야

이 경 환

사화학과

I.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한반도 주변정세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탈냉전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냉전시대의 국제정세는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와 제국주의 3국체제의 등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북아정세 역시 이러한 세계정세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붕괴, 미국의 전략변화, 일본의 재등장, 중국의 침묵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을 냉전적 대립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대공전에 대한 국제관계전선의 패배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던 동북아시아가 탈냉전시대에는 미·일관계를 축으로 해서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질서재편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폐기 선언, 북한에 대한 핵사찰 요구, 또한 한반도에 대한 본격적 참여로 현실화되면서 한-일 수교의 쟁점으로 북한 핵사찰 문제가 떠오르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조-일 수교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핵사찰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일 정치군사적 동맹의 강화되는 시점에서 '제2의 카사라-테르' 밀약을 전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일 중심으로 재편된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북한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에서의

핵사찰 요구 압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 21일 제23차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제재강구"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의 '북한 고립화' 현상은 사회주의권 붕괴전락에서 지역분쟁 대처 전략으로 전환하여 '화려한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꿈꾸며 탈냉전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깊이에 북한이 막아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탈냉전 시대의 미국의 세계전략

화려한 팍스아메리카 시대를 열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올해 3월 1일 제네바 미 국방장관인 의회에 제출한 '1992년도 국방보고서'에서 뚜렷히 나타난다. 이것의 중심내용을 요약하면 "소련과의 세계적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때문에, 미국방 전략의 초점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해서 지역분쟁을 국방계획에 주된 초점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대신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본래적으로 지역분쟁 대처 전략을 세계전략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배경에는 지역분쟁에 군사적 압력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군비확산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도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추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재정 무역 적자를 반영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추구를 추구. 둘째, 미국의 상대적인 힘의 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의 집중적 추구라는 원칙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 두가지 원칙을 전제하면서 서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전방 기지 전력의 삭감, 이를 보완하는 긴급 배치군(RDP: Rapid Deploy-

ment Force)의 창설, 제3세계에 대한 저강도 전쟁과 평화개입 강화, 쌍무적 동맹관계의 강화와 집단안보 체제의 구축 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패권 아래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반도에서는 이미 그 힘의 논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국군 통합군제로의 개편, 신국방전략 수립,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체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전시접수국 지원협정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Wartime Host Nation Support Agreement)」은 전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중립군의 신속한 배치와 운용에 필요한 각종 시설(항만, 도로, 상수도)과 물자(유류, 탄약) 수송 및 노후 지원 등에 대한 우방국의 지원내용과 규모, 비용부담의 원칙, 이를 위한 평상시의 준비 및 점검(훈련) 등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즉 미국은 전시에 군수지원부대를 동원하지 않고 전투부대를 신속하게 증원함으로써 보내고 한국은 미국의 전투에 필요한 유류, 탄약 급식 등 군수지원과 시설, 인력, 비용을 지원하여 미국 중립군의 조기전력화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전시에 대비한 것이지만 평시에 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시에 미 중립군에 병참지원을 하려면 평시부터 물자비축과 시설 관리 및 동원 태세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평시에 수행되는 각종 합동군사 연습 비용도 이 협정 규정에는 사립부 기구, 실전부대의 일련 측면에서 볼때, 이 협정은 팍스아메리카 실현을 위한 세계전략의 두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을 위

한 '종합적인 방위분담 협정'으로

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1일 제23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에 의해 제기되어 그 동안 국민적 합의없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 왔던 「한미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이 이 협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체결한 의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결전 이후 강화된 미국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 '팍스아메리카'를 실현하려는 구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레이건의 군비확대노선 이후 계속되는 쌍둥이 적자(재정·무역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탈냉전의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의 축소와 부분적 기지폐쇄를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국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원칙 아래 이에 상응하는 대체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른바 군사비 감축은 불가피 하지만 전투력 손실로 나타나는 안면이다. 「이중기지방식」으로 나타난다.

IV. 한반도는 반영구적인 미국군사기지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에는 '이중기지방식'이라는 미국의 해외 주둔국정책이 숨어있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는 미본토에서 주둔군이 곧바로 파견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방위비 분담방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중기지방식이란 본토에 정예기동병력을 유지하고 해외에는 사립부 기구, 실전부대의 일련 측면에서 볼때, 이 협정은 팍스아메리카 실현을 위한 세계전략의 두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을 위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언제든지 한반도(남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계획이다.

이러한 병참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은 미국의 평상시 주둔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미군감축의 대체효과를 가져온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상당수 병력을 철수하지만, 남한에서는 2000년 이후까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주한미군을 결핵화할 것이라는 공식인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는 타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이 긴급배치군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남한을 기지로 미군에게 내주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를 구실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도 다른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것이 주둔국적인 주한미군에게는 남한에 버금가는 '전국의 땅'은 없을 것이다.

V. 법적으로 무제한적인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이 협정의 2조에는 '예측하지 못한 전시접수국지원'은 적절한 기술에 따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이 미국이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를 미국의 발전기지로 삼으려는 구상에서 체결되었음을 볼때, 이 '예측하지 못한 전시접수국지원'

은 미국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하는 조항이다. 최소한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도 단지 이 조항만으로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증원할 경우인 위기, 적대행위, 전쟁이 발생할 시기를 표기하지 않은 것과 함께 '예측하지 않은 전시접수국지원'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남한의 모든 자원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전쟁이 아닌 위기와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미국의 중립군을 파견한다는 조항 역시 문제이다. 전쟁이 아닌 위기와 적대행위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까지 미국의 개입정책을 볼때 미국이 지지하는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였을 경우에도 미국은 이 협정을 근거하여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도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2조 2항에는 '동원될 필요가 있는 민간자원은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때까지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거꾸로 국가동원령이 선포된다면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의 성격으로 체결된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언제든지 한반도(남한)를 접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할 만 하다.

VI. 반미평화군축투쟁만이 민족 운명을 개척

민족의 운명을 개척

팍스아메리카의 시대를 꿈꾸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미군기지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침략행위인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의 체결에 성공했다.

또한 북한 핵개발 저지와 관련

해 군사적 물리력의 사용도 배제

하지 않겠다는 도발적 발언을 공

공연한 행하면서 한반도를 전쟁

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

시하는 냉철한 시각과 이에 기초

한 올바른 실천일 것이다.

미국적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협정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

과 분노는 「한반도 비핵군축 실

현과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저지

를 위한 공동대행위」적극적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편이

다. 특히 특별법 저지 싸움의 승

리를 확신하며 큰 힘을 쏟고 있

는 제주지연인 경우는 더욱 그러

하다.

민족의 자주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역사적 시점

에서 있는 청년학생들은 이제

흔란한 시대 현실에서의 '자성의

비판'을 냉철한 시각으로 운동의

대의를 인정하고 올바른 실천을

할 때이다.

도민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민

족의 운명이 걸린 지금 청년학생

이 앞장서서 반미평화군축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조국의 운명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복속하는 기

지로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도민의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해 「미국적 전시접

수국 지원협정 국회비준동의」반

대! 「특별법 국회통과」저지! 기

치를 높이 들자!

쌀수입개방과 미국의 복귀

I. 들어가며

지난 11월12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나는 농업,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협의할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우루과이와 나라는 자유무역에 중진이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오랜 무역장벽을 허물고, 제3차 무역·농업·농업 분야의 개방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은 미국과 한국에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를과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장개방이 있어야 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안이 바로 우루과이와 나라는 완성이라

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한겨레신문 11월14일자) 같은날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3일간 열린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 제3차 총회에서 쌀시장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일본등과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활발한 마찰 접촉을 벌인 결과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쌀 시장을 포함한 각 분야별 우루과이와 나라는 협상을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별도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 협상의 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 실질적으로 쌀수입개방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여기서는 미국의 쌀수입개방을 요구하고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쌀수입개방 압력의 배경

미국의 수입개방압력 등 대외통상압력은 유독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독·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아시아·신흥공업국 등 대미무역흑자국이던 예외없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은 1987년 1천7백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자국의 무역수지적자를 타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해소하겠다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미국 경제의 위기와 그로부터의 탈피가 미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그 진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Young Report'(1985)에 의하면 1960년대 전반기 미국 제조업의 이익율은 10%대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 5% 내외, 1980년대에는 더욱 낮아진 3%대로 떨어졌다. 이는 고달픈 고금리체제하에서 군수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재정적자의 누적이 민간부문의 여유자원을 잠식하게 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은 1970년대의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크게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 반도체·공작기계·컴퓨터 등 자본재나 중간재부문에서는 일본·서독이, 그리고 섬유류·신발류·가전제품·자동차 주요 부품 및 비내구소비재의 경우에는 신흥공업국이



◇쌀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전적으로 우리의 주식을 의존한다는 것은 식량중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내적 모순 한국등에 전가

타국농민 죽이고 자신들만 살겠다는 발상

전국민 합심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할로

미국시장의 수요를 '잠식해' 갔다. 따라서 미국은 신발·라디오는 거의 60% 이상, 공작기계·반도체 등에서는 40% 정도, 의류·자동차·컴퓨터 등에서는 2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 인위적인 고달픈 유지와 산업공화화로 인해 수출부진과 외국수입품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야기하여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자. 한국의 대미무역수지는 1982년 약 2억달러라는 근소한 흑자를 기록한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약 9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6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고 결국 대미흑자는 의류·신발·잡제품 등 경공업제품과 전자·전자·철강·잡제품 등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곡물재고는 1987년 9월 세계의 총곡물재고량의 58.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농가는 우리나라의 농가 못지않게 누적인 빛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황의 심화와 각국의 농업보호정책, 경제자립요구의 강화, 인도·태국 등이 미국의 주종수출품에 있어 경쟁국으로 등장한 점 등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세계곡물시장의 과잉상태를 부추겼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는 생산조정, 소비축진, 수출진흥 등 다양한 복합적인 국내정책수단을 동원하고 GATT 25조 5항(현재조항)에 따른 농산물수입규제 등 국내농업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V. 수입개방압력과 우리나라 정책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내외국점자본의 농업수탈을 가

1972년~76년에는 식량정책의 목표가 식량자급에서 주곡의 자급으로 후퇴되었고, 식량자급의 포기로서 식량수입은 급속히 증대되었고(표1참조) 그에 따라 식량자급 식량자급률은 1960년대 전반기 70% 정도를 넘어서다가 1976년에는 74.1%까지 저하되었다.

결국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외의존적 수출주요품인 곡물과 전략곡물에서 지속적인 자급정책과 국내농업생산 확충을 위한 물적 기반 미비등으로 국내의 농업생산은 증대되는 농산물수요를 따라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자본과 정부가 오히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무차별하게 도입해 식량자급률의 저하를 가속화시켰다. 1970년대 중반에 증산정책의 개방농정으로서의 전환은 농산물 수입문제를 전적으로 농산물 수입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국내생산자를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적 역할로 삼는 농업 부문에 대한 완전포기를 시사

농업부문은 더이상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작용할 수 없었으며 국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적인 국내농산물 가격은 더이상 저임금의 기초로도 작용할 수 없었다.

미국은 1987년 6월 '한미 경제협력회의'에서 공산품 3백60개와 농산물 87개 등 총 4백47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7년 9월에 1백32개와 1988년 1월에 48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불만을 토로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20%), 통신기기(20%), 화장품(50%), 자동차(40%), 자동차부품(20%) 가공농산물(20~50%), 포도주(100%)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은 자유화하되 관세는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수입을 어렵게 하는 관세의 시장필요성, 국내물가안정 및 국제수지흑자 축소, 통상마찰 완화 등의 이유로 소비재 원부자재 등 6백91개 품목에 대해 1988년 7월1일

으로 인한 공황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발생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지배의 전략수단의 하나인 농산물, 특히 곡물은 사회주의국가에는 수출금지조치의 수단으로서 EEC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에는 무역분쟁의 수단으로서 또한 미국에의 경제적 의존도가 강한 개발도상국에는 수입개방압력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시장내의 우리나라 경제 점유율 4.2% 미국의 무역적자총액에서의 비중이 5.8%에 불과한 한국의 대미흑자규모는 미국의 무역적자누적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강한 압력을 가해오는 것은 자국의 내적 모순의 타국에 전가라는 측면과 우리나라를 미국주도하의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속에 적극 끌어들여 정치·경제적인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수 없다.

놀라운 것은 벌써 '미국의 쌀 수출제한자민 전미농장미업자협회(RMA)'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로비활동을 벌인 데다가 국내시장동향, 쌀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쌀 소비량이 많은 (표2참조) 우리나라가 외국에 전적으로 우리의 주식을 의존할 경우 이는 식량중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값싼 외국 농산물이 격이 앞으로 계속될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장기수출에 따른 농약처리로 인해 잔류성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의 농업문제는 농민들의 문제라 될 수 없다. 즉 민족문제로서의 농업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전 국민의 생활이 걸린 쌀수입개방을 우리들은 적극 저지해야만 한다.

[임상범 기자]

능하게 하는 주요 조건으로 자리잡아 왔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기인

하는 것이다.

이제 임금노동자의 확보곤

란에 직면한 국내자본에게

〈표1〉농산물 수입추이(1962~76)

(단위:천달러, %)

구분 연도	총수입(A)	농산물수입(B)	B/A
1962	421,782	106,700	25.3
1963	560,273	181,400	32.4
1964	404,351	121,800	30.1
1965	463,442	122,800	26.5
1966	716,441	141,500	19.8
1967	996,246	181,388	18.2
1968	1,462,873	258,097	17.6
1969	1,823,612	411,599	22.6
1970	1,983,973	438,049	22.1
1971	2,394,320	553,349	23.1
1972	2,522,002	524,832	21.9
1973	4,240,277	851,067	20.1
1974	6,851,848	1,228,343	17.9
1975	7,274,434	1,425,958	19.6
1976	8,773,632	1,325,254	15.1

부로 재차 관세인하를 결정했다.

V. 대책

미국은 군사관련사업의 고수익 및 과잉자본, 농업부문의 생산과잉 및 팽창되었던 전시수요의 급속한 감퇴 등

〈표2〉한·미·일의 쌀생산 현황(1989년 기준)

	한국	일본	미국
농작소작 중 미국소작 비중(%)	35.4	4.9	0.3
농업소작 중 미국소작 비중(%)	59.5	34.2	0.6
농작소작 중 비중(%)	43.0	81.7	52.4
총GNP중 농업GNP비중(%)	10.1	2.8	2.0
총경지면적 중 논면적 비중(%)	63.6	45.1	0.6
총농가 중 미국농가 비중(%)	92.1	63.2	1.4
총취업자 중 농업취업자 비중(%)	18.7	6.5	2.4
호당 경지면적(ha)	1.20	126	184.4
농업취업자당 경지면적(ha)	0.65	1.2	128.3
1인당 쌀소비량(kg)	121.4	70.1	7.1

□ 차기 자치기구 회장단 소견 발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선출한 학생회장의 이름과 얼굴도 제대로 모른채 그리고 그들이 처음 우리들에게 내걸었던 약속들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곧 학우들의 참여가 부족한 사업추진-문턱이 높은 학생회-뒷마루에 소홀한 학생회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대비책으로 본사에서 각 자치기구의 내년도 사업계획들을 미리 학우들에게 알림으로써 학생회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여운이 씀)

총대의원회



김세성

이제 우리 홀로 보낼 투쟁이라든 투쟁을 하지 말자! 이제 우리 홀로 보낼 투쟁이라면 조국을 애가하지 말자!

학우들 중심으로, 학우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민족제대 제8대 전진하는 총대의원회 회장 김세성(법·3), 부의장 오성탁(과·3), 참찬 전진의 발걸음으로 인사드립니다.

'92년 전진 총대의원회는 기간의 사업 작품의 오류를 반성하고 혁신의 자세로 학우가 주인되는 대의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치기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학생회 사업을 바르게 견인,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학생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공개적인 간부인준, 사업인준 및 감사활동을 통해 학우가 주인이 되는 사업을 만들 것입니다.

각과 정·부학생회장을 대의원으로 하는 총대의원회는 학내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여론화 시켜내고 각 자치기구마다 투쟁의 고리를 엮어 내면서 학우들의 권익문제와 학생회의 자치권 담보를 통해서 자주화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여 대자립을 건설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



이영식

여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라 여성의 함박웃음을 실현하는 참된 여성 집단 총여학생회.

하루하루 이 땅의 주인으로 서 나가는 3천5백 여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별의 땅을 불살라 분단의 장벽을 깨부수고 7천만 겨레에게 민족 통일의 꽃다발을 안겨주고자 여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라 여성의 함박 웃음을 실현하는 제8대 참된 여성 집단 총여학생회는 각 단체 여학생위원회가 단체

저 하나되는 열린 동아리 연합회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동아리와 동연이 연관을 가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유사한 전문성을 가진 동아리끼리 분과 재편을 통해 분과내의 사업을 해야 하며 동연은 분과를 지원하는 관계속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과를 통해 각 동아리들이 요구를 받아야 할 때 열린 동아리 연합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더욱 거세지는 제국주의 폭압속에서 일상 생활이 썩어 문드러지는 제국주의 문화를 척결하고 민족 자주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동아리인이 주인되는 배움터, 생활의 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제2학생회관건립과 관련하여 동아리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넷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조국 사랑의 한 뜻을 모아 자주, 민주, 통일의 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 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이 땅의 현실인식과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동아리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땅에 찾아올 새 날을 위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영구 분단의 음모자 미국에 대한 반미투쟁을 강화하고 민주 정부 수립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법정대 학생회



강기석

“불복전의 의지모아 쓰러져가는 학생회의 사업기풍을 바로잡고 이완된 학생회체제를 지도내용의 과학화와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해 민주민주로 힘차게 전진하라!”

80년 광주선별사들의 괴물생명으로 하여 등장한 극악한 군부파괴에서 선배들의 피와땀, 사람과 정열로 건설된 학생회가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구심으로서 다가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강의 학생회사업이 음모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해 학우들은 인원동원의 대상이 되었고, 노래나 구호를 외칠 때 혼드는 손동작, 몸동작 하나하나가 웬지 모를 어색함속에서 학생회와 학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학생회와 학우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제5대 법정대 학생회는 민주집중제와 공개의 원칙으로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논의내용의 사전공개와 토론의 활성화속에서 운영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자치기구 대표로 구성된 '단대학생 대표자 대회'를 통해 학생회 사업의 심의와 평가를 하고 학생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소환권·파면권행사도 학우들을 학생회의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로 설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회는 학우여러분들의 관심과 질책이 있어야만 이 공진적 우리들의 권력체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학생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가열한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단대대의 기치아래 학생회를 강화하자!”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학우가 주인되는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결정할 때 그동안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적게 주어졌던 점을 시인하면서 분임토의 안착화, 확대운영위 강화를 통해 학생회 운영을 체계화해 나가고 학생회 사업의 매시기록 공개화와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경제문제 소위원회'를 건설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는 제주지역경제 문제를 학문적 특성상 책임있게 고민하고 학우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 경제문제 소위원회 건설은 현 경상대대학 존재하는 경제관련 소모임(분과)에 경제문제 전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제공해 주며 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수 간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회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일선 경성인의 권리행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회 운영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는 것이 바로 92년도 한라경성이 해가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일선 경성인들에게 작은 실천에서 신뢰받고 여사의 부름에 용감히 있어서는 그리고 항상 패기와 정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모습 이것이 92년도 한라경성의 참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해양대 학생회

△사법대와 농과대는 원고자 접수안에서 공약사항을 실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진리가 해명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변하면 제도 또한 시대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개선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리없는 대중(Silent Majority) 이런 대중을 위해 내년 '정남해대'는 믿고 찾아올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김민보

'92년 민족승리 자연대 학생회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8백여명의 힘과 지혜로 하나가 된다는 원칙하에 모든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분임토의를 통한 과학대 대표의 위상정립 및 자주적 학생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물에 대적농민회의 연계를 갖고 전개했던 단대농회를 더 활성화하고 내사량 제주도의 현안 문제를 고민한다는 입장에서 농학연대추진위를 건설할 것이며, 그와 함께 특별법지지, 민주정부수립 투쟁도 당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자연과학으로서 왜곡되었던 과학을 극복하고 인간을 위한 민족자주과학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과 실정에 맞는 분과들을 창출해 내고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학술 세미나 대학교육의 학술교류, 비디오상영, 대자보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학우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학원자주화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즉,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강의의 질적 변화를 위해 강의평가제를 제시하겠습니다. 1년간의 자료수집, 교수평가의 간담회,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들을 만들어 강의평가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임토의를 통한 단대학생총회의 사상의 자주와 학우의 주인으로 세우는 민주적 원칙, 차이를 인정한 통일의 원칙하에 김민보, 백수진은 92년 임중한 시기를 맞아 최선봉에서 열심히 싸워 나가겠습니다.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공과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야간강좌부 학생회

김광진

단대는 학문의 영역에서 서로 연관된 학과들로 구성되어 야간은 두개의 단과 대내의 야간 강좌부 학생을 근거로 학생회가 임시기구로 존재한다.

◇중앙자치기구 공약사업 평가

대외투쟁에 치중...학내문제에 소홀 학우의 권익 제대로 대변못해 각종 행사에 참여 저조

I. 들어가며

차기 각 자치기구장 선거도 끝난 지금 '통일단결총학생회'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3월 출범한 제7대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의 임기가 그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각 학생회가 출범당시 내세운 공약사항들을 어느정도 실천했는지 그간의 학생회 활동 사항을 평가,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총학생회와 여학생회, 총대의원의 활동사항을 평가하면서 차기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자치기구들의 학생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총학생회

'통일단결 총학생회'의 기치를 내건 제7대 총학생회(회장 위생관·원예 3, 부회장 김창남·무역 4)는 일반 학우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다는 공약사항들을 제정했다.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사항의 전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보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단결총학생회 운영 △학원의 주인으로서 학원자주화 투쟁전개 △4·3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추진 △자주민주통일의 새조국 앞당길 민주정부수립투쟁과 제주지역문제해결의 선봉적 역할수행의 건설이 그것이다.

▲일상사업

총학생회는 학생회와 일반학우들간의 단결감각과 학생회체계의 강화와 학생회본연의 역할과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확대총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전례와 시정조각을 약속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총학생회에서는 출범초기에 각 학과반을 방문, 학과학생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간부학교 개설을 통해 총학생회 사업전반의 운영에 있어서의 공개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바로 세워나기라는 노력을 보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단대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총학생회의 의의가 발휘되는 등 어느정도 공약사항들이 실천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학기 들어 특별법 반대투쟁의 열기가 고조·확산돼 총학생회 활동이 정치투쟁에만 매몰돼 당초 계획한 일상사업에 따른 공약사항은 더 이상 실현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민주적 회칙개정추진과 관련해 언급하고자 한다.

총학생회의 목적은 학우들의 이익옹호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회칙기간에 서는 특정노선에 치우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개정회칙 기간을 보면 총학생회 목적조항이 특정노선을 표방, 회칙전반에 현총학생회(NL계)를 중심으로한 내용이

지배적이라는 학우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민주적 회칙'에 대한 여론이 분분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회 개정에 있어는 어느 한 집단이나 특정개인의 이해에 관계없이 많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좀더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회칙개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학원자주화사업

총학생회는, 올바른 학생회 발전강화는 정치투쟁보다도 일반학우들의 권익과 복지사업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 한 뒤, 이에 인권복지위원회 활동을 지원, 강화함과 동시에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 각 부서들을 개편, 일일적 복지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총학생에서 출범당시 내걸었던 학우들을 위한 권익옹호사업은 거의 백지화 되다시피 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데 대해서 총학생회장은 "처음에는 인복위의 사업을 통해 학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속에서 학생회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복위의 활동이 고위층에서 인복위의 하나를 빠져나가 나중에는 인복위장만이 사업을 꾸려 나가는 상황이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실현시켜 나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인복위장만 저 시위에서 부상을 당하자 인복위 사업은 결과적으로 날개조각 파편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습

니다"라고 밝혔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또한 총학생회는, 도서관 학과 시험 공부방을 하기위한 곳이나 연구와 탐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서를 확충하도록 하고, 북한자료의 개방과 도서관 문제, 정기 간행물들의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1층로비가 열람실로 개조된 후 북한자료실이 최근 설치된 것은 총학생회의 사업과 무관한 도서관의 행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실천력있고 힘있는 총학생회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총학생회장은 학생회가 학교행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행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교수·학생회의와 건설해야하고 그속에서 교과과정문제점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과정 개편문제와 관련 총학생회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상당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 기구변화와 전공교수에 맞춰 기존의 과목만을 고집했던 교과과정 설계부분에 학우들이 지적, 학문적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마르크스원전' '현대사회의와 매스컴' 등의 교과과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한해가 저물도록 교과



대중투쟁을 할 때는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과정개편은 재정의 열악함과 부족한 교수진 등의 문제로 거론되기도 했음에도 '마르크스원전'의 설치추진 계획도 처음에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 역시 학교 행정상의 문제로 부딪혀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애교심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정문을 학교장상을 형태로 개조해 나갈 것과, 발전기금조성운동차원에서 '백원내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우리학교 사랑하기 운동의 하나로 수목모으기 운동을 학교당국과 연계해 해나가면서 전체 학우들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바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실행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던 부분으로 선거유세시 내세운 공약사항이 구체적 실행방안없이 말로만 떠드는 일종의 '사탕발림'이란 인상을 일반학우들에게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투쟁사업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갑작스레 터지는 사건들로 인해 총학생회는 분주한 일년을 보냈다.

학기초, 4·3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취지 아래 도내 10개 재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던 4월에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강경대하루 타살사건에 따른 규탄시위를 시내에서 벌이던 중, 고규형·김영국 학우가 전경에게 쏘인 사건을 일으킨 후 추락한 사건은 학우들은 물론 시민들의 투쟁 여망을 더욱 강화시켜 놓았다.

특히 지난 5월 동맹휴업결의와 비상학생회의의 성사들은 당시 큰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투쟁들을 이끌어오면서 겪는 지도부측의 역량 한계는 어쩔 수 없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제2주

그 열기가 사그라져 나중에는 학우들은 물론 지도부에서마저도 그 대책마련이 호지부지 돼버리는 결손을 보였다.

2학기에 들어서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특별법문제와 양용찬씨의 분신으로 지금까지 각종 집회와 시위·단식농성을 비롯, 최근 제3차도민대회까지 이어 지는 끈질긴 투쟁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간에 2학기 중간고사 등의 이유로 그동안 지속해오던 전개해나지 못해 많은 유언비어와 함께 일반학우들에게 커다란 불신감을 안겨주기까지 해 총학생회에 대한 좋지않은 인상을 심어 준 것도 사실이다.

'91총학생회에 있어 특이할만한 것은 작년과 달리 단대학생회들과의 노선대립으로 인한 독자적 사업전행으로 벌어지는 문제점들, 사회부장 1인만을 제외한 임기주요직책을 맡은 이가 구속된 점 등이, 학생회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여는 때보다 잠입이 없는 모습을 연출해 낼 수 있었다.

III. 총대의원회

지난 3월 '자주학원의 주춧돌'을 실현 총대의원회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7대 총대의원회(의장 이상현·무역 4, 부의장 김문식·경제 3)는 사실상 12월로 그 임기를 다하게 된다.

학생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설을 통한 기관지를 비롯 자료집과 회보(대외인신론)의 정기적인 발행으로 사업의 공개화·대중화를 이룩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한해동안의 편집부 활동은 학기초 출범지 발간과, 앞서 언급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발간에만 그쳐 유령부실한 편집부가 돼 버렸다.

총대의원회의의 기획부장은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확실하고 체계적인 인수인계 작업을 통해 짧은 임기로 인한 임원들의 교체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에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상 어려웠다.

한해동안에 이루어진 총대의원회의 활동중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이 있다면 상반기 학생회 감사결과를 자료집 형태로 발간한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공약사항과 사업계획을 통한 업무감사의 실질화·사항에 비추어, 전반적 사업감사를 실시하여 있어 회계감사만으로 그쳐버렸던 '90년도의 감사한계'를 벗어나 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스폰서비를 공개함으로써 좀더 실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체계적인 회칙개정 및 기구규정에 관해 총대의원회는 6인조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꾸려 4월초부터 공청회를 가질려고 했으나 회칙개정에 대한 참고사항 등 자재의 문제점과 회칙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부재로 9월말에서야 비로소 회칙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추진과정상의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회칙개정 공청회를 개최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칙이 안 발간되는 등 임기초 회칙개정은 내년 전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총대의원회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는 '순자산'을 매년 실시되고는 있으나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나 학우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한 총대의원회의는 편집부 신설을 통한 기관지를 비롯 자료집과 회보(대외인신론)의 정기적인 발행으로 사업의 공개화·대중화를 이룩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한해동안의 편집부 활동은 학기초 출범지 발간과, 앞서 언급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발간에만 그쳐 유령부실한 편집부가 돼 버렸다.

총대의원회의의 기획부장은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확실하고 체계적인 인수인계 작업을 통해 짧은 임기로 인한 임원들의 교체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에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상 어려웠다.

IV. 총여학생회

우리학교 3천5백 여학우들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의 역할을 해온 제7대 여학생회(회장 김보선·국고 4, 부회장 박예실·사회 3)가 지난 3월에 '자주여성 해방 총여학생회'라는 기치 아래 출범하여 이제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는 단계에 이르렀다.

나름대로 출범당시 내세운 공약사항에 비해 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전개해 왔지만, 아라 여학우들의 모든 이해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반부족과, 사업전행에 맞지 않는 현실적 여건 등을 비롯 작은 숫자의 임원들만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각 단대 여학생위원회 및 여학생부의 활발한 활동은 독

자성을 띠며 여학생들의 필요성과 새로운 인식을 학우들에게 심어주었고 내년에는 학과단위까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이의 지도적 구심체 역할을 한 총여학생회의 노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간 여학생회는 여성학교, 아라여성의 날 개최, 아라여성 대중놀이, 기관지 '햇님'발간, 여성총학생회, 타아남사학우들을 통해 여성학우들의 복지 및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일반 학우들에게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인권복지부 산하 취업대책반을 꾸려 여학생 취업실태조사 및 취업대책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던 총여학생회는 인력난으로 인 복부서를 꾸려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로 인한 계획은 아예 실행조차 하지 못해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복지 생활 차원에서 배구공·축구공·배드민턴 등의 운동기구를 대여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아예 실행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던 부분으로 많은 학우들의 아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이점 역시 인력부족으로 인복부서를 꾸리지 못한 데서 파생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항들과 달리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닌 간단한 고도 승수론 사업임을 감안하고 공약사항의 공신력과 참미미를 인지할 때, 비록 인복부서가 아니라더라도 충분히 자체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었던 사업이다.

필요시 여학우들의 여학생회개 발에 대한 사항만도 그렇다. 즉, 한해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는 결과 모든 여학우들이 여학생회개 발의 개발을 원했고, 여학생회를 감안해 그 장소가 외진 곳이나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새로이 신축해 기숙사를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지금에서야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보다 강화하고 추진력있는 총여학생회의 역할수행이 아쉬운 사업이었다.

'90년부터 시작된 여성학생회는 예년과 달리 많은 관심을 보여 주

었다. '여성과 농민' '여성과 취업' '여성고 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올해 세번 개최된 여성학생회는 "작년에 비해 많은 숫자의 학우들이 참여해 비교적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으나, 아직도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학우들의 참여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총여학생회는 밝힌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여성문 학생회 공모는 처음치고는 용모작수는 그런대로 편찮은 편이었으나,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새로운 인식등의 총여학생회가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내용의 글들이 많아,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그 의의를 비롯, 올바른 행사 홍보를 통해 학우들의 좀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제 총여학생회는 차기 총여학생회에 넘겨줄 일련의 사업들을 정리, 이월작업을 해 나간과 동시에 임기가 다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남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그동안의 부진함을 조금이나마 씻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좀더 추진력있고 활발한 사업전행을 통해 단대 여학생회의와 연계 강화로 여학우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며

사회·지역·정치문제 등은 대체로 추상적인 공약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실천여부를 평가하는 것 역시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일쑤여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학내 문제의 몇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각 자치기구의 역할수행에 따른 평가를 종합해 볼 때 각 자치기구 활동의 전체적인 공통적 문제점으로 '특별법 반대투쟁'의 극심한 지역사회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것, 일반학우들의 이해를 옹호하고 그속에서 학우대중들과 함께 연계 투쟁해 나가는 대승론을 확보해 내지 못한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물론, 학생회가 역사속에서 학생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자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각 자치기구의 일차적 존재의의를 감안할 때 학우대중을 위한 사업들을 총학생회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류는 각 부서 및 특위의 엄격한 업무분담 및 부서협조체제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사람·투쟁·학습의 공동체라고 한다. 이는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으로 이같은 특성에 맞춰 학생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되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말과도 직결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공약사항에 따른 사업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냉철한 평가를 내리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한해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는 그간의 오류를 재검토하는 속에서 학생회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규범은 내년 학생회사업 추진에 선행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자치기구들은 한해동안의 사업들을 반성하며 남은 사업들을 차분히 마무리짓는 성실함속에서 혁신적인 사업의 계승·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바람직한 구심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한경희 기자]

대우가 있습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가는 뜻은...”

“선배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선배님 활약상은 서울에서도 익히 들었지만 막상 와 보니 정말 굉장하네요. 신입사원으로서도 감히 엄두도 못낼 만큼 물어봐도 되고 있네요.” “그럼 당연하지, 여자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중심부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참, 금년 인턴사원으로 대우에 입사했단다.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래, 그 어려운 문문을 뚫고 대우인이 된 소감이 어떤가?” “실용기간 동안 선적업무는 만났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일에 대한 정열과 희생을 가지면 왜 필요한가를 피부로 많이 느끼게 하구요. 역시 대우에 입사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에서 일하다보면 더욱 그렇지. 더구나 일본같은 나라와 경쟁하는데는 대우 특유의 창조와 도전정신 없이는 힘들어.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삼각무역, 현지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당당한 국제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세계 64개국 84개 해외지사서 선배님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을 생각을 하면 세계 속의 대우가 아니라 세계가 곧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앞으로 선배님 못지않은 국제 세일즈맨이 되고 말겠습니다.” “그래, 자네와 같은 활기찬 후배사원을 만나게 돼서 마음 든든하네. 우리 함께 국제화의 길을 넓혀 보자구.”

오늘도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국제화의 주역들. 그리고 많은 바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

◀ 뒤로 일본 경제의 상징인 국제무역센터와 도쿄타워가 보인다. ▶ 대우증권 청강빌딩 정면과 대우인사원으로 입사한 이영복군. 도쿄 '무의의 거리'에서 정장차의 실용성을 듣고 있다.

 호남정유주식회사